

##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 05. 29(일)

minjooincheon.or.kr

문의 : 김은경 대변인  
(010-9326-2535)

### 국민의힘의 남촌일반산업단지 재추진, 강력 규탄

- 국민의힘, 발암물질 유발로 주민건강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재추진
- 유정복 후보를 비롯한 지역 후보자들의 신속한 입장표명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 및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는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남촌산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1,9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3조원 대의 생산유발 효과, 인근 선학동의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제의 발언은 각종 의혹과 환경영향평가로 문제를 일으킨, 남촌스마트밸리(주)가 남촌산단 추진을 전제로 주장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주거권과 학습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반대해왔다.
- 특히, 남촌산단 예정부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현재 농도는 발암 위해도(1.00E-06)보다 최대 70배 이상 (7.2E-05)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남촌일반산단 예정부지 주변에 2km 내에 위치한 학교는 연수구 8곳(선학초, 선학중, 연수초, 인천중, 인천여고,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연일학교, 중앙초), 남동구 7곳(남촌초, 도림고, 논곡중, 논곡초, 남동고, 성리중, 성리초), 미추홀구(문학정보고, 인명여고, 관교초, 관교중 4곳)으로 모두 19곳이나 되며, 인근 주거지역은 연수구(선학동, 연수1·2·3동), 미추홀구 문학동,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등이 위치 해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원점으로 돌아간 사업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라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실상 연수구민과 남동구민의 건강권은 상당한 침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심각할 것” 이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후보와 지역 후보들도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라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2022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